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9호 [우계 제25242호] 주제 105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철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철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여정동지, 김장광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장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여 2013년에 일떠선 공장에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건설된 공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최첨단정밀기계제품연구개발과제를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길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의 자욱이 어려여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한 공장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강혁명주의정신으로 부닥



대한 문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더 많이 양성할데 대한 문제 등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저히 요구하는 최첨단정밀기계제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것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예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떨쳐나선 열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 알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켜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출고나감으로써 정밀화, 지능화된 최첨단기계제품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특히 총성의 70일전투기간에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였으로써 공장앞에 맡겨진 삼반년도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가공 및 조립장, 전자도서관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과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조업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기계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공장에서 만든 기계제품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크게 은을 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땅의 의도대로 과학기술을 증시하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철저히 밀착시킨데 있다고 하시였다.

당에서 마련해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을 최첨단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사업도 잘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부강조국건설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더 많은 기계제품들을 생산할수 있게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호류선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새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며 제품들의 정밀화, 지능화수준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를, 기계제품제작에서 자체와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툃에 즈음한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4툃에 즈음한 청년 학생들의 경축 모임이 7일 평壤중앙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전통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기판대학 기관사 김성철, 박항구씨 남사함동맹 농장원 조갑욱,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조성환, 대성구역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김경일이 모반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군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 혁명위업의 승수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피정표를 미행한 거대한 정치적사건이었으며 민족사적대경사였다고 강조하였다. 비밀한 사상리론적이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만사람을 명혹시키는 교묘한 인물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혁명,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온넛을 불태우시며 당과 국가, 군대의 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선대양군침을 수명영성의 대기범리로 빛내어주시고 우리 당을 수명의 유일적명도체제가 되고 이 선 가장 장위력한 혁명

적당으로, 백전백승의 장성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첫 수수단시합의 완전성공과 지구 관측위성 《평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라는 민족사적인 경사품 안아오심으로써 핵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펼쳐 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을 충대로 굳건히 당보배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최후대, 언직의 지지점으로 만들어 대한 군권실사상을 밝혀주시고 빛나게 구원하시어 새 군권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장정에 의해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인민사랑의 장조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되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느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주체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벼두산칼바위에 불을 달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펼쳐가는 주인

공들로,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들로 키우시고 내세워주시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격하게 받들어 70일전투의 철야군공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필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을 위창한란하다는 철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결단검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 옹호보위하는 수명결사옹위의 제일결사대, 500만의 총력군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이상한 애국열의를 일고 벼두산혁명기념3호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장성국가건설의 주요 전투마다에서 선군시대 청년동격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과 인군들이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청년들을 우리 당과 사상

도 슬겘도 발전음도 같이하는 주체혁명위업수명의 명장들로 더욱 억세게 키워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청년동맹인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리에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 장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출력, 총매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관제부문, 청년동맹인군들, 청년학생들이 경축모임에 참가하였다.



대 양 절 경 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막

평양-순안고속철차, 지상전동차, 5t급화물자동차형태도안들과 식료품포장도안, 화장품상표 및 포장도안, 여러가지 사무용품, 가구제품 등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도안들과 제품들은 당의 명도됨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산업미술의 자못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개막식이 7일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되었다. 관제부문 인군들, 창작가, 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용진대각부총리는 개막식에서 온 나라 청년군민이 위대한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지도하여 주신 자동차, 트랙터도형태도안과 금형제작업종합식포장장 제품상표도안을 비롯한 100여점의 도안들과 실현제품들이 출품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룩하시어 주시고 구두의 투게도 제때보신 《태명산》상표의 각종 신발들, 유지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학생기방을 비롯한 전시품들은 전체위원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뜨겁게 전하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또한 당의 전투적요소들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산업미술부분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 애호가들이 출품의 70일전투철야군공을 다그치며 창작한 1,000여점의 각종 도안들과 제품들, 모형들이 출품되었다. 경 비 행 기,

당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언설자는 모든 인군들과 창작가들이 주체적산업미술발전에서 앞장서신 위대한 수명님들과 뜻깊은 올해에 장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적극 추동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대 양 절 경 축

영화상영주간 개막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일이 개막되었다. 영화상영주간에 평양시와 각지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영상을 감명있게 수록한 《영원의 인류의 마음속에》, 《인류의 영원한 태양》, 《수명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등의 기록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조선의 변》, 《산국의 태양》, 《잊을수 없는 나날에》, 《위대한 꿈》, 《화성의속에서의 한해어》, 《정신질》을 비롯한 예술영화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제부문 인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언설자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란민인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언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수명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대 양 절 경 축

영화상영주간 개막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일이 개막되었다. 영화상영주간에 평양시와 각지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영상을 감명있게 수록한 《영원의 인류의 마음속에》, 《인류의 영원한 태양》, 《수명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등의 기록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조선의 변》, 《산국의 태양》, 《잊을수 없는 나날에》, 《위대한 꿈》, 《화성의속에서의 한해어》, 《정신질》을 비롯한 예술영화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제부문 인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언설자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란민인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언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수명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대 양 절 경 축

영화상영주간 개막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일이 개막되었다. 영화상영주간에 평양시와 각지의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는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영상을 감명있게 수록한 《영원의 인류의 마음속에》, 《인류의 영원한 태양》, 《수명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등의 기록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조선의 변》, 《산국의 태양》, 《잊을수 없는 나날에》, 《위대한 꿈》, 《화성의속에서의 한해어》, 《정신질》을 비롯한 예술영화들도 상영된다. 개막식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제부문 인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언설자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란민인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욱 억세게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언설자는 전체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수명님들의 부강조국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전에는는 료력적성공과 이룩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를 확신을 표명하면서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인민이 우리를 칭송하는 우리 수명님을 찬양한다》



태양절경축 영화상영주간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관제부문 인군들과 예술인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 모임 진행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3툃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7일 평壤군에서 진행되었다. 박태남도당위원회 비서, 관제부문 인군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철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제자 및 발사국, 핵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민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농업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장관님께서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치시며 부려주시는 민복의 씨앗이 행복의 열매로 주렁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당원한 씨뿌리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며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말

거진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농업전선에서 총장군을 불러 대승전고를 높이 올려 나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선전쟁의 불길같이 전행작업인, 전행분조를 창조하고 따라배우기와 따라알리기 위한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대선봉을 창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무리에 굳게 뭉쳐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눈부신 료력적성공과 이룩함으로써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하시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성스러운 중임을 지니시고 국가사업전반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자립적민주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대적모임이 창조되어온 자랑스러운 모진이었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온 세계에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펼치는 무적결승의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묘의 정 표시

민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7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묘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학원한 사상과 정력적인 평도로 백두산대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대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민주

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전체위원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묘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명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민족회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재미동포 예술인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축음악회 《4월의 봄》이 2일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머트진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는 우루과향악단 단장 라준우가 지휘하는 바이올린협주곡 불루의 교전적명작 《사향기》로 시작되었다.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불문 불류의 헌신, 교묘한 덕망과 인품으로 인류의 태양이 되시어 인민대중이 지주정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신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위인을 그리는 만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명작의 은은한 선율을 장내에 울려 퍼져 관람자들을 깊은 흥조의 정에 잠기게 하였다. 교향곡 《수명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명세 한다》는 어버이수명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청년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펼쳐보았다. 우리 인민의 교상하고 열정적인 정신세계를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로 형상한 관현악 《평안성에 풍년이 왔네》, 념성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지》, 《나는 앞날 내》 등은 관람자들에게 끝없는 정서를 안겨주었다. 음악회에서는 외국교원음악들도 연주되었다. 명성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연주로

인류의 대성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흥조의 정이 만민총승의 노래되어 온 누리를 진감하고있는 뜻깊은 4월에 미국당에서 태양절이 높이 울려 퍼졌다. 민족회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재미동포 예술인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축음악회 《4월의 봄》이 2일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머트진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미동포들과 미국인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는 우루과향악단 단장 라준우가 지휘하는 바이올린협주곡 불루의 교전적명작 《사향기》로 시작되었다.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불문 불류의 헌신, 교묘한 덕망과 인품으로 인류의 태양이 되시어 인민대중이 지주정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신 위대한 혁명가, 불세출의 위인을 그리는 만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명작의 은은한 선율을 장내에 울려 퍼져 관람자들을 깊은 흥조의 정에 잠기게 하였다. 교향곡 《수명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명세 한다》는 어버이수명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청년군민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펼쳐보았다. 우리 인민의 교상하고 열정적인 정신세계를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로 형상한 관현악 《평안성에 풍년이 왔네》, 념성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지》, 《나는 앞날 내》 등은 관람자들에게 끝없는 정서를 안겨주었다. 음악회에서는 외국교원음악들도 연주되었다. 명성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연주로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큰 행복이다

태양절경축음악회 《4월의 봄》 미국 뉴욕에서 진행

유악회는 절정을 이루었다. 온 장내가 숨쉬던 분위기에서 환쟁이 가운데 연주가 끝나자 관중들은 극성이 떠나간듯 우렁찬 박수를 퍼치고 재미동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유엔연자들은 연주를 통해 일제와의 괴이한 항일투쟁투쟁을

가 매우 침해하고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 속에서도 미국의 실정부에서 태양송가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고 하면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날로 높이 펼쳐지고있는데 대해 격찬하였다.

가 매우 침해하고 조선반도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 속에서도 미국의 실정부에서 태양송가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고 하면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이 날로 높이 펼쳐지고있는데 대해 격찬하였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 도착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이 7일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될 대회에 참가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선수들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신대방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7일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

제18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18차 김일성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 반영된 선전화에는 태양조선의 장엄한 지존이로 불세출의 하늘가를 배경으로 만경대교향집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형상되어있다. 선전화에는 《위대한 수명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절》, 《제18차 김일성화축전》이라는 글방이 새겨져있으며 축전마크와 장소, 기간 등이 반영되어 있다. 선전화는 위대한 수명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묘심에 떠받들려 성황리에 출몰 위인정승, 영생축원의 꽃축전을 펼칠데 장식되는데 거머지게 될것이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올해 세계보전 기구가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여 당노병을 미리막자》를 주제로 제기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비전열성질병 특히 당노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선전사업과 과학연구사업, 예방치료를 사업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보건의 출판보도부문 인군들과 주요 세계보건의기구 대표, 유엔사무주장자 정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 도착

【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재중조선인예술단이 7일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될 대회에 참가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잠비아, 짐바브웨 선수들이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신대방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7일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보건의 출판보도부문 인군들과 주요 세계보건의기구 대표, 유엔사무주장자 정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할 외국선수들

미국의 <비핵세계>라령은 조선에 대한 핵전쟁전주곡이다

조선 종 앙 통 신 사 고 발 장

최근 미국에서 제4차 <핵안정수뇌자회 의>라는것이 벌어졌다.

오바마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엔 막을 내린 <핵안정수뇌자회>는 미국의 핵전황과 관련된 유지하는대 목적을 둔 국가 기 만적이고 도발적인 팽대국이다.

회의기간 미국은 남조선평의회들과 일본 회 이종이더중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우리의 <핵위협>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대조 <핵>에 압박분위기를 조성시켜려고 획 획 동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 고 가장 많은 핵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세계 도처에 배치해놓은 핵무기들로 전인류의 생존을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는 미국이 저들의 핵공갈책동의 직접적산물인 우리의 핵무력을 약의에 차서 절교코는것이아달로 어불성설이며 파멸의 극지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기만적인 <비핵세계> 구상의 막뒤에서 핵무기전태화와 핵공갈을 미친듯이 강행하여 조선반도의 세계를 임 의의 손에 열락전행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 으려는 오바마행정부의 천후유용한 획 획 의행을 부르되려하는 교묘함을 발표한다.

로 매어달림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을 무감히 짓밟았다.

기어이 핵공갈에 의한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정책들을 실제 핵전쟁수행에 맞게 정 비, 보강하였다.

2010년 4월 6일에 발표한 <핵대세전 로 보고서>에서 핵무기전태화조약을 준수하 는 나라들에도 경우에 따라 핵무기사용을 고려할수 있다는 문구를 조야박음으로써 아무런 제도적장애를 받음이 없이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하게 핵공격을 단행할수 있는 사전포석을 치어놓았다.

2011년 11월 17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둘데 대한 정책 을 선언하였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5일 저들의 군사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린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와 강행하였다.

2016년 3월 11일 로씨야의무성 전라방 지 및 무기문제국장은 <연 미행정부제 제하에서 핵무기전태화는 전례없는 규모로 확대되고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세계체제를 위한 오바마행정부의 핵무기전태화등이 구도에 이르렀다는것 을 보여주고있다.

실지로 미국방성 부장관은 올해 2월 25 일에 <에너미스-3>시험발사후 이것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대국들에 핵타격을 가할수 있다는 신료를 보내기 위한것이라고 떠벌림으로써 저들의 핵무기전태화등이 핵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대 목적을 두고 있다는것을 벗어치게 드러내놓았다.

오바마행정부의 범죄적인 핵전쟁도발기도 는 그 위협수위를 넘어서 핵타격수단들의 전 방전개척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미국은 유럽각지에 배치되 어있는 저들의 핵공갈책들을 새 핵공갈책으로 교체할데 대하여 나토성원국들과 비밀협정 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이 지역에 핵장공모함, 핵공 수함을 비롯한 해군부력의 60%를 투입하 는 한편 지상과 공중에서도 핵우세를 유지 하기 위해 미쳐나루고있다.

미국의 발발적인 핵전쟁공비책등으로 말 미암아 조선반도와 세계에는 핵대전의 절 은 구름이 더욱 무겁게 드리우게 되었다.

이렇게 한 근본원인이.

지금 오바마행정부는 저들의 핵전쟁도발 책동에 대치한 우리의 정정당한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폄하하면서 그들 구실로 조선반도에서 핵도발박을 날로 확대하고있다.

오늘의 증엄한 현실은 우리가 미국의 핵 위협을 최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핵무 기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질감적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선전지명하고 침단된 정당한 조치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확신 시켜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독점야망과 핵공갈책 등으로 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희망한것으 로 된 조약에서 조선반도비핵화는 더는 꿈 도 꿈수 없는것으로 되었다.

우리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선언으로 핵한 병진 로선의 길을 계속 역세게 걸어오겠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이미 핵무기전태화의 보 다 높은 단계인 수소탄제조와 한도르드 대기권제동입에 필요한 모든 첨단기술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소형화, 표준화, 규격 화된 다양한 핵탄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능 령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

오바마행정부의 집권초기부터 기도해온 북핵전쟁도발을 발표시킴으로써 조선반도 와 지역에서의 핵전쟁발발의 위협성을 더 속 중대시켰다.

결실없는 북핵전쟁연속소송으로 조선 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일촉즉발의 최극단 으로 몰아갔다.

지난해 <올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 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고전적전이라는 철학한 8월전대를 불어온 미국은 우리 공 화국의 미증유의 초강대국으로서 교훈을 훗날 대신 대조선핵안정책등에 더욱 기승 스텝을 남기고있다.

올해 3월 7일부터 <스테니스>호해항공 모함타격전, <노스캐롤라이나>호해항공모 함, <D-52>, <D-23>해전특폭정기, <D-22A>스텔스전투기 등 모든 핵전쟁장비들의 투입하여 사상최대규모로 벌리고있는 <D 리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북핵전쟁정세행의 현실성을 최후점증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예도전복> 을 노린 <임수작전>, <죽음제사라>훈련등 을 로골적으로 감행한것이 그들 실정주 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공물이 계단식으로 확대되 고있는 합동군사연습소용이아달로 조선반 도정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구당한 지경에 치달

세계제패를 노린 핵독점전략, 핵공갈책동

2008년 4월 5일 오바마는 제스코의 브 라히에서 로씨야와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속 감조약을 체결하고 <핵안정수뇌자회>를 소집하는 등 5가지 내용으로 된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라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만의 핵무기 보유를 실현하기 위한 핵독점전략이다.

오바마가 집권할 당시 국제적인 핵평판 상황은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선전에 불리 하게 먼져지고있었다.

핵무기보유국수가 핵무기전태화조약이 조인되면 시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은 핵무기를 기본수단으로 세 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구도에 전 혀 부합되지 않는것이였다.

오바마행정부에서는 새로운 핵보유국들의 출현과 함께 잠재적핵수국자들의 핵무 령강화를 막을수 있는 방책이 시급히 필요 하였으며 그로부러 고안해낸것이 다음이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었다.

여기에는 낡은 핵무기들을 폐기하면서 그 것을 <핵공약>으로 둔갑시키고 그 막뒤에서 핵무기전태화를 다그치는 한편 적수들을 핵 속박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핵무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자는 절은 속셈이 깔려있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은 이전 부 행정정부의 범죄적인 핵전쟁책 공묘하게 은폐한 보다 위협선단한 핵전전략이다.

한데 부행정부는 저들의 핵전전략수행 을 다그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로후한 우 리에 올림탄두 6,000개를 신형탄두 1,700-2,000개로 교체할데 대한 일명 <플플렉스 2030>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2007년 미국회는 제정기간 <핵무기없는 세계>에 대한 찬반을 심의하고 적수 국가들이 이를 양도할수 있도록 <실형에 학습권>이 주어 미국은 새로운 핵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리었다.

적수들을 속여넘길수 있는 보다 교활한 정책 을 마련한 다음에 계획실행에 달라라야 하 한다는 뜻이었다.

장경보수세력인 부하일당도 잡히 강행하 지 못하였던 그 결정을 오바마행정부가 실 천에 옮긴것이었다.

범죄적인 핵독점야망을 <핵무기없는 세 계>라면서로 분별하고 핵으로 조선반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흉심은 끝 만천 하에 드러났다.

2010년 3월 오바마는 그 무슨 성명이라 는에서 미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핵 무기를 축소하고 그 역할을 낮추고자하도 하고하면서 의연 <안정전고> 포락적인 핵억 제력을 유지>할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았다.

미국은 2010년에 작성한 <4개년국방전 략보고서>에서도 <비핵세계>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핵공약>의 간판밑에 핵무력의 일방적우위를 보장하는것을 정책화하였다.

2010년 8월 미국무성 당국자는 로씨야 이에 체결된 새로운 전략공격무기속감조약 이 미국의 핵무기전태화와 미미일방위제 세수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핵위협을 어 석히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핵무기없는 세계>구상이아달로 은 세계를 미국의 핵무기만이 존재하는 세 계로,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 로, 단결을 노린 교활한대 침포함을 달아놓 아서 현대 미행정부들의 침략정책을 훨씬 넘 가하는 극악한 핵독점전략, 지배전략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집권기간 <핵무기없는 세계>의 간판을 내건 핵독점전략, 지배전략 이며 따라 세계적인 핵공갈책동등에 앞장서

로 매어달림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을 무감히 짓밟았다.

기어이 핵공갈에 의한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정책들을 실제 핵전쟁수행에 맞게 정 비, 보강하였다.

2010년 4월 6일에 발표한 <핵대세전 로 보고서>에서 핵무기전태화조약을 준수하 는 나라들에도 경우에 따라 핵무기사용을 고려할수 있다는 문구를 조야박음으로써 아무런 제도적장애를 받음이 없이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하게 핵공격을 단행할수 있는 사전포석을 치어놓았다.

2011년 11월 17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둘데 대한 정책 을 선언하였다. 그에 따라 2012년 1월 5일 저들의 군사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린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지역의 핵보유국들을 완전히 제압 하고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전면적 인 핵전쟁을 벌일수 있는 국권을 조성하기 위 한 사실상의 전지구적핵전쟁도발책이었다.

그에 따라 오바마행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핵무기와 반사제제들을 현대 화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7조USS라는 엄청난 재부역에 놀라워 편 방정부에산까지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2013년도에도 핵무기전태화에 170억USS 나 편성하였다.

미에산통제법에 따라 해마다 1,200억 USS의 자금을 자동삭감해야 하는 예에서로USS의 30%준동전 전략핵무기전태화조 <조 USS>의 기역을 틀어쥐고 하고있다.

막대한 핵공갈을 조성하여 핵무기공갈을 만가동하고있으며 핵실험과 새로운 핵무기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 핵무기들의 위력을 검증 할 목적밑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 마다 여러 형식의 핵실험들을 감행하였다.

2014년 뉴멕시코주에 로스 알모소와 원미아국립연구소에서 정밀유도핵폭탄 <GB1>의 성능시험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내미반도의 지하핵실험장에서 3차 례에 걸쳐 실험핵폭탄 <GB1-123>의 비행시 험을 벌리었다.

특히 스텝스기능을 갖춘 실험정거리로적 기 <GB-39>의 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오하 이>공급핵전기를 세계내각도미사일 전략공격수함들로 교체하는 <ORP>계획을 세 워고 2010년부터 그 수행에 착수하였다.

오래전부터 승승을 부란히 경신했는 데 핵탄탄도미사일 <미너스-39>에 대한 시 험발사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회 시

조선의 핵무력은 미국의 핵범죄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철위

오바마행정부는 세계제패를 위한 핵전쟁 도발의 기본작전지역을 우리 나라로 정하 고 집권초기부터 조선반도핵무기를 사상화 악으로 끌어갔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아시아라는 <고 기영터>를 잘라낼수 있는 <안정>으로 간 주해온 미국은 오바마행정부시기에 불어와 핵전쟁자산을 조선반도에 주로 집중하고 우 리에 대한 핵공갈책 등으로 가속시켜왔다.

미국은 북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 고 그에 따라 모든 대조선관련법들과 군사 작전계획들을 더욱 조악하고 강도높은 내 용으로 바꾸었다.

2009년 2월 우리 공화국을 핵전쟁공격 대상으로 규정한 이전 정권의 작전계획 <ORPLAN 80109>의 계약안에 서명함으로써 대조선핵안정책들을 보다 강도높게 집행해 나갈것을 집권초기부터 확정하였다.

2009년 10월 미군남조선 제41차 번째 안보협의회의에서 <신인적수준>에 있던 남조 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선>보호를 미분로 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이 한다는 <확정적 제핵책>으로 구체화하고 2013년 3월 피 퇴들과 <공중중지도발대비계획>까지 세움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국부에서 자동제 하에 그것을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정비하였다.

미국은 2013년 10월 2일 남조선평의회 들 <맞춤형핵전력>을 공식 확정함으로써 <유사시>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우리에 대 한 불의적인 핵전태화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군사작전세부들을 완성하였다.

2015년 8월에는 우리에 대한 <핵>, <무력화>, <제사공격작전> 등의 여러 단계 로 진행되는 <작전계획 5027>를 단행개시

미국의 핵범죄를 정의의 철위

90일전에 특수부대들을 공화국북반부에 침투시켜 내부교란작전으로 <검열시대>를 일으킨 다음 대규모공격행동을 개시한다는 <작전계획 5029>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 에 <맞춤형핵전력> 등을 반영한 새로운 북핵전쟁정도발각본인 <작전계획 5015>를 작성하였다.

그해 11월 25일 남조선평의회가 <원자 령전쟁>에정당성을 발표시킴으로써 조선반도 와 지역에서의 핵전쟁발발의 위협성을 더 속 중대시켰다.

결실없는 북핵전쟁연속소송으로 조선 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일촉즉발의 최극단 으로 몰아갔다.

지난해 <올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 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고전적전이라는 철학한 8월전대를 불어온 미국은 우리 공 화국의 미증유의 초강대국으로서 교훈을 훗날 대신 대조선핵안정책등에 더욱 기승 스텝을 남기고있다.

올해 3월 7일부터 <스테니스>호해항공 모함타격전, <노스캐롤라이나>호해항공모 함, <D-52>, <D-23>해전특폭정기, <D-22A>스텔스전투기 등 모든 핵전쟁장비들의 투입하여 사상최대규모로 벌리고있는 <D 리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북핵전쟁정세행의 현실성을 최후점증하기 위한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예도전복> 을 노린 <임수작전>, <죽음제사라>훈련등 을 로골적으로 감행한것이 그들 실정주 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공물이 계단식으로 확대되 고있는 합동군사연습소용이아달로 조선반 도정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구당한 지경에 치달

정의의 철위

우리의 강력한 핵무기보유로 미국이 우 리를 핵으로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 되었으며 세계를 위협하던 핵병력국가의 처지는 어제날의 요망한 가재자로부터 오 늘날의 가련한 폐쇄자로 위바뀌었다.

우리의 핵무기전태화야말로 미국의 핵전쟁 책동, 세계제패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 의 자주성과 생존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정의의 정책이다.

절대로 변할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책에서 정세라도 변하면 우리는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반드시 핵과 핵, 불과 불의 대결이 있게 되였다.

미국이 침략적인 핵전쟁책을 도발할 기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미국의 분노에 무서비한 핵전쟁불태세를 입일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이아달로 미국의 핵범의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철위이다.

우리의 최후적결심은 미국은 잘못 고 른 잘못을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상태에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는 역사에 두 번째로 되는 스티븐 후버마거 할 사이도 없 게 완전히 명백하고야말것이다.

미친개처럼 싸다녀 동족을 헐뜯는 박근혜역도가 같길은 비참한 황천길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 화

침의대안방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집합으로 뛰어나가 군사방위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박근혜역도의 기질이다.

최근 우리에게 무뎠던 도발행동을 해 대가 노호한 친인친인민군의 보복의제 기강에서 까무러치던 침의대안방에 들어 박이었던 박근혜가 매미질 살무명이라고 찾은듯이 미국에서 열린 그 무슨 <핵안 정수뇌자회>를 틀러 무려 6백80명간이나 해외를 떠돌아다니며 정치참모로서의 기 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만사람을 경악 하 고였다.

가쁜 몸짓거리다가도 주인을 만나면 숨이 나서 젖어대는 비무역은 개혁위원 해가 태평양언제나 기동사망의 끝에 기여들 지마지 동족을 향해 도사리 그 누구에 대 한 <경고>, 그 누구의 <사면>이니 하고 악형을 동군데 가소롭게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기동사망지선 시꺼세사방 이진 가지고 없고 꼬리표 흔들면서 <북 의 핵공약을 이끌어낸 유일한 수단은 세 계와 압박>이라고 입을부리며 <국제공 조>를 자랑하노라고 신랄하게 일도며 미 친듯이 늘어놓았다.

우리가 강하게 변명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물렸으면 마려운것마저 참고 군 사법률과 동족을 포함하는 적정법을 하 다가 단세사헌법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국제외교사에 처음 보는 해괴한 꼴볼전 까지 연출했는가.

행각기간 박근혜는 조선반도문제에 관 심이 없었던것인 상태를 기록도 없고 요망 스텝을 내뱉고 <북핵공조>를 힘 을 보태달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예제> 와 <인력>에 총력을 집중해달라니 하 며 구역질나는 험악한놈에 대말었다.

한미타로 박근혜가 태평양언제나에서 놀 아던 해괴망측한 포락시리는 동족을 헐 뜯는 개미꽃을 죽을 때까지 버릴수 없 는 가장 유악한 대장이다, 우리의 선군위력 에 열변친 원하박근혜의 지랄발악증의 극 지가 아닐수 없다.

박근혜의 특징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지껄여대 는것이다.

박근혜가 찾아가 미국으로 말하면 인 류의 머리누로 처음으로 현자탄을 들의 렸고 오늘날 세대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 를 가지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흉 악한 범죄국가이며 특히 년도와 세기를 무시하며 우리 인민을 핵으로 공갈하고 위 협해온 침천지침수이다.

이러한 미국명에서 <핵없는 세계는 조 선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분정기간을 나팔을 불어대며 <북핵포기> 를 고이며 박근혜야말로 천만에 미쳐도 더럽게 미치고 분별력을 잃어도 락없이 잃은 망나리교과에 달리는 불수 없다.

미국은 박근혜가 아직도 상대가 누구 인지도 모르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려대 고있는것이였다.

우리와 그만큼 대상하였으면 미국의 대 조선적대정책과 핵위협이 제쳐지지 않 는 한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 으며 오히려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백방으 로 강화해나갈것이라는것들은 통상하고 고이해 구명을 늘어라 하였었다.

박근혜를 쫓기는 미국까지도 이제는 우 리의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해줄 는 없다는것을 인정하고있는 관국에 유독 무 지무도한 박근혜만이 그 무슨 <핵공조>강 상에 사로잡혀있었는것을 보면 세살초이기는

물결은 고사하고 저기도 모르고 산전도 모 르는 원하의 봉신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정대 3년이면 종일도 외출도 하지 지만 박근혜는 태평양언제나 들어갔을 3년이 지났는데도 조선반도에 왜 핵탄 제가 방랑하였는지 일지도 못하고 그 말 을 가려놓지 못하고있으니 게보더도 한 지능치수를 가진 어떤 산머지리를 누 가 <태평양>으로 상대해주고 온전한 사 람으로 취급해주었는가.

우리의 무지비한 핵전세력적인 들어 악몽에 시달리는 미국은 박근혜같은 권권 내니는 장녀의 행방을 경적해줄 처지가 된다는데다가 그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심 긴 오바마의 정치적전도도 올레도 마무리 해아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탈알에 태극피를 지은 박근혜가 정 전의 사파구니에 대말려 아무리 양탄을 부러보았자 소용없으며 저지론 권위에 는 있었지만 따르기바뀌었다.

만사람의 조소를 더욱 자아내고있는 것 은 령사의 심판대에 올라갈 시국이 분 분조조이다 그것은 박근혜가 특공안의 조복선에서 된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모 르고 <평화통일>의 초소를 놓는 대동으로 로 기억되고있다. >느니 뭐니 하고 노족 을 부르고있는것이였다.

<태평양>행적지를 쓰자마자 북남관계 를 고의적으로 파란시키고 오늘은 북남 사이의 나치대명동이며 개성공급지구 까지 전면폐쇄하여 천대미친의 파국적위 기에 몰아넣은 극악한 민족분열자, 최대 의 반통일인물이 다름이안 박근혜이다.

북남관계를 절편내고도 부속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오고있는 원하에 들도 없는 악녀 인 박근혜의 승승을 하루벌의 끊어버려야

한다는것이 남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다.

비로 그 민심의 정황이 정와대안에서도, 정와대안가에서에서도 그 때로 존재를 조 존하고있다는것을 박근혜는 알아야 한다.

박근혜는 의외에도 민족의 비의를 팔아 먹은 오바마의 참녀, 북남관계를 망쳐놓 은 대걸요귀, 온갖 악과 재난을 불러오는 시대의 마귀라는 그처럼 추악한 오명으로 이미 판인정했지 오바마 후세들로부터 비 명칭시한 제 매미와 함께 만고역적으로 두고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새겨두어야 한다.

지금 친인친인민은 우리의 최고준엄과 <예도전복>을 노린 박근혜역적태양의 도 발행동을 단호히 짓궂게하여 민족의 의지 를 안고 창와대소결투를 들부실 최후명령 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박근혜는 죽음의 명령이 배회하는 청 료대에 다시 제비로오기보다 미국상선의 공에 양겨 퍼려온 정명을 부지하고있을 지만 우리의 전략국의 핵보위적대상인 미국명은 물론 그 어디서도 피난처를 일 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미친개처럼 해외를 떠돌아다니며 동족을 겁을 제촉하는것들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제명을 다 산 박근 혜를 깨이고 분별없이 짓어대고있는 미 국과 그에 달랑이 출주하고있는 어중이떠 중이들의 윤령 역시 달리는 필수 없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조선 미국본토를 행성에서 매장 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에 진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 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위원회 대변인 담 화 <어떤 야만적인 <조강도제>도, 전 대미국의 군사적압살도, 원 인공화(세도봉괴)책동도 필승 의 선군대대로 걸출되러가는 때우산대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지 못한다>를 4일과 5 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 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다음 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미국과 적 대시력들의 대조선압살소통은 전후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전쟁에서 가장 가혹한 제제의 대상으로 사람들 을 전폭적 한 케닌그라드봉쇄 도, 평전시대의 커리네테라기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 에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고 주 경중대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대미친 의 침략전쟁소통은 미국본토를 인의의 시각에 핵보위적책에 당 할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대변인은 강조하 였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적 쇠약시 키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 령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 >는 주제조선을 철저히 불

도 없는 지평, 지역, 지장의 위 대한 강국으로 전면시켰다고 연언하였다.

또한 조선을 분열화해서기 기 위한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선군대대로 걸출되러가는 때우산대국의 눈부신 전진을 가로막지 못한다>를 4일과 5 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 다.

로씨야의 마스통신은 다음 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미국과 적 대시력들의 대조선압살소통은 전후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전쟁에서 가장 가혹한 제제의 대상으로 사람들 을 전폭적 한 케닌그라드봉쇄 도, 평전시대의 커리네테라기도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 에는 대비조차 할수 없다고 주 경중대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대미친 의 침략전쟁소통은 미국본토를 인의의 시각에 핵보위적책에 당 할수 있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몰아넣었다고 대변인은 강조하 였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적 쇠약시 키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 령들의 야만적인 <초강도제 >는 주제조선을 철저히 불

대니 싸수 느게소

공교대통령으로 재선

공교에서 대니 싸수 느게소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지되었다.

그는 최근에 진행된 대통령선

세계적으로 산림이 육식하게 파괴되고있다.

자표에 의하면 해마다 1300만ha의 산림이 파괴되고있다 한다.

원인은 이삼기후현상에 의한 각종 자연재해, 탐벌과 입수 업자들의 위협행위 등에 있다.

산림을 보호하는것은 인간의 복리증진과 지구환경보호,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나 서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산림조성보호 사업들을 근기있게 하고나가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경 영에 리익을 주는 혼성림조성에 힘을 넣고있다. 그것은 혼성림 이 나무의 성장과 이산화탄소흡 수, 열매생산, 동물육성이보장 등에서 단선면보다 훨씬 더 많 은 도움을 주기에대한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조성사업을 계획화하고 그 실행 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지역 나 파들은 2020년까지 1억 5000만ha, 2030년까지는 3억 5000만ha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 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

한자니아정부는 앞으로 10 여년동안에 수백만그루의 나무 를 심을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 고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통발 정부도 사막화를 막고 산림조성을 다그치기 위해 매해 5월과 10월 무분별주도입을 전국적인 나무심기날로 정하 고 모든 주민들이 나무심기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농기모를 사용하던 사물들을 농기 고 모양이간을 줄임있 으며 계절에 편제없이 나무 심기를 할수 있다. 또한 화학조 성을 간련하게 하고 그 효과를 높이며 나무무대체를 공급화합 수 있다.

과학기술적도대우에서 산림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

지만 심은 나무를 잘 키우고 그 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책 을 따라세우는데도 중요인 문제 로 나선다.

브라단에서는 탐벌 현상에 대한 정당한 신고제도를 세웠으며 반미정부를 담당하 출을 금지시키고 완재 혹은 반제점증으로 된 목재수출만을 허 용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재밀매행위 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군데와 경찰, 지방정부들과 산림경위부의 고위성원들로 전문원행위자 조 직하고 국경지역에서 지송기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

지만 심은 나무를 잘 키우고 그 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책 을 따라세우는데도 중요인 문제 로 나선다.

브라단에서는 탐벌 현상에 대한 정당한 신고제도를 세웠으며 반미정부를 담당하 출을 금지시키고 완재 혹은 반제점증으로 된 목재수출만을 허 용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재밀매행위 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군데와 경찰, 지방정부들과 산림경위부의 고위성원들로 전문원행위자 조 직하고 국경지역에서 지송기

나무를 많이 심는것도 중요하

지만 심은 나무를 잘 키우고 그 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책 을 따라세우는데도 중요인 문제 로 나선다.

브라단에서는 탐벌 현상에 대한 정당한 신고제도를 세웠으며 반미정부를 담당하 출을 금지시키고 완재 혹은 반제점증으로 된 목재수출만을 허 용하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 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재밀매행위 를 철저히 단속할것을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군데와 경찰, 지방정부들과 산림경위부의 고위성원들로 전문원행위자 조 직하고 국경지역에서 지송기